

國家發展 道具로서의 圖書館의 使命

1969. 5. 28~30일까지 3일간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의 방향과 주장이 제시될 기조연설 원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우선 소개합니다.

大韓民國 學術院

會 長 李 丙 燾

한 나라의 文化的 發達과 國力의 富強은 大衆의 學校인 圖書館의 普及과 成長 整列에 正比例한다고 할 수 있다. 人類는 文字를 創造함으로써 記錄된 文化와 歷史를 가지게 되었으며 生命과 思想의 不滅을 願하고 理想을 實現시키려는 努力에 依하여 그들의 經驗을 蓄積하고, 知慧를 짜서 圖書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또한 知慧의 產物인 圖書를 永遠히 保存, 公開, 傳授하기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을 創案하게 되었다. 따라서 人類文化가 圖書에 依하여 繼承되었다면 圖書館은 文化를 傳承시키는 道具로서, 한 人間의 知識의 用器가 頭腦인 것 처럼 人類의 知慧의 用器가 되었던 것이다.

人間은 知慧의 發達에 따라 未知의 世界를 開拓하려는 慾望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慾望은 보다 더 새롭고 完全한 經驗을 要求하게 되었으며 이 때 마다 圖書館은 必要한 知識의 提供者로서의 役割을 담당하여 왔다. 그리고 人間의 歷史가 記錄 保存 傳達의 繼承이라는 意味에서 圖書館의 役割은 歷史를 간직하여 온 歷史의 產室이다. 특히 君主의 意志에 의하여 支配되던 封建時代에 있어서는 學問은 一部 支配階級의 專有物이었으며 國家의 統治 支配를 위한 政策의 案出은 知識의 寶庫인 圖書館을 源泉으로 삼았을 것이 事實이다. 앗시리아 時代에 니네베의 앗술바니발의 宮殿에 王宮文庫를 設置하였던 것이라든지, 古代의 Egypt 와 Mesopotamia에서 宮중에 文庫(House of Book)를 設置한 것이라든지, Alexandria 圖書館이 70萬卷의 寫本을 收藏하였던 事實이라든지 中國에 있어서 歷代의 「秘書省」과 韓國에 있어서 高麗時代의 「秘書省」, 近朝鮮의 「奎章閣」 등이 모두 權力의 中心部인 闕內에 깊숙히 設置되었던 事實들은 圖書館이 統治의 知慧를 提供하는 必要不可缺한 政治의 道具이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歷代의 君主 帝王들이 한 나라를 征服하고 第一次의 奪取하는 것이 文庫 혹은 閣, 院 등으로 불리워지는 圖書館이었으며, 圖書를 가장 귀한 戰利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藏書 蒐集에 熱을 띠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實例를 들면 Persia 王 Xerxes 1世가 Athens의 Pisistratus에 의하여 紀元前 6世紀頃에 設置된 文庫를 拿獲하여 本國으로 移轉시켰고, 그 뒤 Seleucus, Nicator(BC 280)가 다시 Athens로 復歸시켰다. 그리고 紀元前 169년에는 當時 Roma의 執政官이었던 Lucius Aemilius Paulus가 Macedonia의 Perseus 圖書館 藏書를 Roma로 가져 왔고, Sulla 將軍이 紀元前 86년에 Athens를 정복하였을 때 有名한 Aristotle 文庫에 所藏된 資料를 掠奪하여 왔다. 이와 같이 한 민족에서 知慧의 保存所인 圖書館을 掠奪하려 하고, 自國內에 國力을 動員하여 文庫를 設置하려 하였던 것은 宗教的인 뜻도 있었지만 그 보다도 國力의 伸張과 統治手段을 얻고 힘을 얻는 源泉으로서, 國家 繁榮의 道具로서 중히 여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卽이들에게 있어서 지식과 經驗의 축적과 혹은 獨占은 民衆을 指導하는 統治手段을 產出하는 權力의 道具였으며 國家 意思의 產室이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古代 封建國家에 있어서 帝王의 權威를 누구에게도 讓渡할 수 없음과 같이 그들에게 있어 圖書館은 國政에 있어서 必要한 道具로서 信仰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社會 構造가 복잡하고 科學이 극도로 發達하고 出版物이 洪水를 이루고 있는 現代 社會에 있어서는 더욱 더 精選된 知識과 綜合的인 情報를 必要로 하게 되고, 보다 더 많고 새로운 經驗을 빨리 要求하게 된 것이다. 卽 急變하는 時代에 있어서 國家의 發展을 꾀하는 길은 새로이 創造 研究된 情報를 効果의 動員하는 일이며, 動員된 知慧를 總和하고, 여기서 案出된 새로운 힘은 進歩의 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民主國家란 「人民에 依한 人民을 爲한 人民의 政治」라는데 특징이 있는 것이며, 特權階級에 의한 統治가 아닌 國家 權力이 人民에 있고, 人民의 意思와 知慧가 民主的으로 効果의 이고, 組織的으로 動員된 場所라는 뜻으로, 圖書館이 國家發展의 道具로서의 意味를 새로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市民의 自意的인 意思와 知慧의 提案을 重視하는 民主社會의 立場에서 볼 때 이를 輕視 혹은 度外視할 수 없는 것은 勿論이고, 人民을 爲한 政治란 人民의 福祉를 爲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國家의 目的(人間의 目的

이 한 國家 혹은 한 民族의 單位로 集約된 意味에서)이 福祉社會를 建設하려는 데 있다면,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效果的인 手段은 發達된 科學의 知識을 蓄積하고 있는 圖書館을 有用하게 活用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先進社會가 人類文化를 先導해 온 事實은 이 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社會의 進歩가 科學技術의 發達과 並行한다면, 科學과 技術이 發達할 수 있도록 한 媒介의인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이 圖書館이라 하겠다. 科學과 또 그 科學을 活用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體系化되고 組織된 것이 技術이며, 그 技術과 科學사이에, 앞선 것에 새로운 것을 附加하여 다시 새로운 科學과 技術이 生産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循環作用을 堪當하고 있는 것이 圖書館이다. 經濟가 安定된 社會일수록 資金 流通이 圓滑한 것 처럼 進歩된 社會는 科學技術情報 및 모든 學術文獻情報의 疏通이 活潑히 이루어 지는 社會이다. 圖書館이 모든 學術文獻의 情報 센터라고 한다면, 社會에 있어서 金融機關이 市民의 金庫이며 國家 財源의 源泉인 것 처럼 圖書館은 市民의 知慧의 金庫이며 國家의 힘의 源泉이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은 한 나라의 知識을 담은 用器로서 가장 效果的이고 民主的인 方法으로 市民의 知慧를 動員하고 國家의 힘을 產出시킬 수 있는 場所이므로 國家는 行政力은 勿論 政府 資金을 投資하는 데 인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들에 있어서는 國家의 成長을 效果的으로 促進시키는데 必要한 知識과 技術을 國民이 集團의으로 習得하는 한 重要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은 文化의 상속자로서 人間의 수없이 많은 經驗과 知識을 수집 整理 보존하고서, 새 文化를 建設하려는 革新的인 意慾을 가진 사람들 혹은 集團에게 知慧와 힘을 補給하는 것이다. 오늘 날 이른바 後進國 一部 國家들이 知識과 經驗의 保存 傳授의 循環作用을 效果的이고 빠르게 作用시킴으로써 高度成長이란 早速한 成長을 實現시키려는 現狀에 있음은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進歩된 科學과 技術을 應用하고 活用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現代 産業은 科學과 技術의 응용으로 해서 生産의 向上 發展을 가져오게 하며, 生産은 科學과 技術을 土臺로 하여 점차 그 規模의 擴大를 促進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擴大된 生産의 規模는 또 새로운 科學技術을 求하게 되고, 새로운 科學技術은 또다시 새로운 産業으로 擴大 發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過程의 循環은 學術 및 調查活動에 관한 새로운 理論과 研究 結果에 관한 情報의 獲得을 要求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때에 情報의 獲得이 不可能하다든지 새로운 知識의 供給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마련된 것이 適切하고 效果的으로 利用될 수 없다고 하면 工業化된 經濟의 機能은 勿論 産業이 麻痺되고 國家의 發展은 停止되는 것이다.

한 나라가 圖書館을 國家發展을 위한 重要한 한 道具로서 인정하고 이를 國家의 정책으로서 保護育成하여야 한다는 것은 充分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또한 國家의 成長을 위해서 圖書館의 기능을 活用하는데는 여러가지 面에서 期待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後進社會가 必要한 先進社會의 知識과 技術을 소개하는 一面을 담당하는 것이 그 하나라 하겠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先進社會를 模倣하게 되는 것이 常例이나, 남이 成就한 學問과 文化 및 科學技術의 內容을 보다 더 빨리 自己것으로 消化하는 作業과 努力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希臘과 接觸한 羅馬는 希臘 文化를 攝取하였고, 羅馬와 接觸한 佛蘭서 및 「이베리아」 만드는 羅馬文化를 攝取함으로써 라틴文化圈을 形成하였던 것이다. 또 辰代 中國에 侵入한 塞外民族(遼, 金, 元, 清 등) 들은 勿論, 中國과 久遠한 接觸을 가진 우리나라, 日本, 安南 等に 依하여 東亞에 中國文化圈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先進文化의 流入은 社會의 傳統을 破壞하기 쉽고 混亂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西洋 사람과 接觸한 未開社會가 西洋文化를 自己것으로 消化하지 못하고 急激히 받아들인 結果 未開人의 生活와 社會가 混亂하여진 例는 적지 않다. 後進國家들이 先進社會의 文化를 받아 그 內容을 신속히 消化하여 傳統文化와의 接觸에서 일어나는 混亂을 단축하고 진보된 社會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國民의 知覺있는 覺醒과 流入文化의 빠른 攝取作用을 促進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促進作用은 社會教育機關인 圖書館의 效果的인 利用과 活用에서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 나라의 社會教育機關인 圖書館이 充分하고 現代의인 機能이 발휘될 수 있도록 整理 整頓 되어서 經濟 産業 文化發展의 調和된 政策의 產室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現在 成長過程에 있는 一部 國家들이 經濟의 成長이 곧 國家의 成長이라고 믿어서 現實的으로 눈에 보이는 利潤動機에 依해서만 國民의 資産(知識을 包含 함)과 政府 資本을 投資하는 것은 調和된 社會의 綜合 開發을 위해서 反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社會 進歩와 成長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 앞서야 하는 또 하나의 基本的인 問題의 하나는 社會의 慣習과 制度를 改善하는 일이다 따라서 改善된 生活의 風土와 思考能力이 얼마나 빨리 國家의 發展을 지름길로 促進하는가는 오늘 우리들이 到處에서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韓國의 境遇 第二經濟란 用語로 表現되며, 하나하나 改善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進歩된 社會란 人間 頭腦의 進歩와 合理化된 生活의 向上을 意味하는 만큼, 覺醒 開化 進歩된 國民의 頭腦가 일

다나 큰 國家 發展의 資源이며 生産의 힘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國家의 成長 過程을 効果적으로 促進하는데 必要한 國民 能力의 資源과 生産의 힘을 集團의 이고 集約적으로 發展시키는데는 民衆의 學校인 圖書館이 가장 重要한 道具의 役割을 담당하는 것은 勿論이다. 이 점은 經濟는 모든 것을 意味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깊이 反省해야 할 일이며, 圖書館 發展에 對한 投資를 낭비라고 생각지 않는 信念있는 政府의 政策을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教育에 對한 投資 支出을 計劃性 있게 實踐해 나가야 할 것이다. "J. K. Galbrath"의 말과 같이 「教育은 消費의 한 形態이면서 同時에 一種의 投資라고 본다」 教育이란 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消費하기도 하고 使用하기도 하고 또 그것은 댐(Dam)이나 運河와 같이 將來에 더 많이 生産하기 위해서 支出되는 投資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疾病에서 求濟되어 나온다면 그에 대한 投資 支出의 效果는 分명한 것이지만 教育 投資에 對한 所得이나 效果 또는 社會의 영향에 對해서는 長期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圖書館에 대한 投資역시 教育에 대한 그것과 같이 長期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生産의 增大와 나아가서는 所得의 增大를 가져오기 위한 가장 確실하고 基礎的인 投資가 된다는 것을 世界의 모든 國家 特別히 발전도상의 國家는 깊이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圖書館 計劃 會議

圖書館 奉仕와 文獻 奉仕가 國家 또는 地域社會의 綜合開發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한다는 것을 認定하고, 國家發展의 一環으로 바람직한 圖書館 奉仕를 圖謀하려는 것이 UNESCO의 圖書館計劃事業인 바 UNESCO에서는 이 圖書館計劃을 效果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이 計劃에 對한 理論을 確立하고 技術을 普及함은 물론 이 計劃의 實現을 可能하게 하는 政府의 支援 및 財源 確保를 위해 勞力이 傾注되고 있음은 周知되어 온 일이다.

따라서 이 圖書館計劃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깊은 理論의 追求와 事業進行에 있어서 일어나는 諸般問題들을 깊이 檢討 研究하려는 노력이 進行되고 있다.

지난 1967年 12월에 세이론의 코롬보에서 開催된 亞細亞 地域 圖書館計劃會議 (亞細亞에 있어서의 圖書館 奉仕의 國家計劃)와 1968年 2월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地域 圖書館計劃會議(Ibero-American 地域 및 Documentation 計劃 Seminar) 등은 이와 같은 UNESCO의 圖書館計劃事業이 地域別로 具體化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 會議들은 세미나 形式으로 열린 것인데 스페인 政府와 이베로·아메리카 教育局(Ibero-Amer-

ican Bureau of Education : OEI), 스페인 歷史研究所(ICH) 其外 알제틴, 부라질, 코스타리카(Costarica), 페루, 스페인,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등에서 有力한 司書들이 參席하여 UNESCO의 專門人들과 이 圖書館計劃事業 推進에 대한 諸問題를 進지하게 討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合議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 하도록 하였다.

1. 圖書館計劃에 대한 定義를 明確히 하고
2. 圖書館計劃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聲明書의 作成
3.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의 現實에 대한 分析 批判
4. 圖書館計劃의 方法論을 確立하기 위한 方案 等이다.

이와 같은 會議들은 1960年代에 活潑해진 UNESCO의 圖書館計劃 事業이 海外에서 着手되어 進行되어 온 것으로서 圖書館計劃論은 教育投資論이란 信念으로 推進되어 온 UNESCO의 教育計劃事業과 並行하여 現在 圖書館發展의 契機가 되고 있다.(KIW)

